

검은 연꽃 장-미셸 오토니엘이 돌아왔다

March, 2016

SOMETHING NEW

검은 연꽃 장-미셸 오토니엘이 돌아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 등의 이름으로 한때 인터넷을 오르내리던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파리 팔레루아얄-루브르 박물관 역을 촬영한 것이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는 '야행자들을 위한 키오스크 (Kiosque des Noctambules)'라는 작업명도 버젓이 갖고 지하철역에 설치된 공공예술작업이었다. 이 작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프랑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업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국제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그의 전시는 5년 만의 국내 개인전이다. 전시명인 '검은 연꽃'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한 신작 제목이기도 한데 문자 그대로 연꽃을 형상화한 모양새에 검은색을 띠는 연작의 유리구슬 조각 작품이다. 유리구슬 조각은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선택해온 소재이나 이 작업은 기존의 유리가 아닌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사실 이 전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오토니엘의 최근작 두 점에 대해 알아보면 좋는데 첫째는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이다. 둘째는 미국 이스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의 정원에 설치한 '바람의 장미(La Rose des Vents)'인데 이는 이번 전시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황금 연꽃(Gold Lotus)'과 작품의 컨셉 측면에서 유사하다.

과거 '라캉의 매듭(Lacan's Knot)'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를 구체화 시키던 이전의 작업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작가는 형태적 측면에서는 꽃이라는 실존 대상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꽃의 관념적이며 상징적인 의미 또한 작업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데에 앞서 언급한 최근작 두 점이 가고 구실을 한다. 작업이 전시되는 공간의 성격 또한 세심하게 고려하는 작가이므로 최근작 두 점이 설치된 '정원' 그리고 '정원 문화'에 대한 연구와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꽃이 갖는 상징성을 향한 관심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한국의 연꽃이 갖는 다각적인 의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본 주제로 국내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검은 연꽃' 연작이 유리구슬 조각 설치작품뿐만 아니라 대형 캔버스 평면 작업 또한 지칭한다는 점이다. 백금박을 여러 차례 입힌 캔버스 위에 검은 석판화 잉크로 표현한 이 작업은 그가 생각하는 연꽃의 상징성을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만 같다. 또한, 꽃이라는 특정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이전 작업들에서처럼 작업 너머의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리구슬 조각 설치작업과 대형 회화 작업이 한데 어우러진 전시장 안에 오토카니 서 있다면 어쩐지 심신 수양차 절에 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에 젖게 만든다. '검은 연꽃' 연작을 한 프레임 안에서 실제로 보았을 때 느끼는 압도감이 예상외로 인상적이나 늦지 않게 발걸음 하여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

전시장 전경



장-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검은 연꽃
JEAN-MICHEL OTHONIEL: BLACK LOTUS
KUKJEGALLERY.COM

일시: 2016년 2월 2일-3월 27일
장소: 국제갤러리 3관